

일본, 인디아 제약기업 Ranbaxy 인수

Daiichi Sankyo, TOB로 지분 50.1% 취득 ... 제네릭약품 사업 본격화

일본 제약기업 Daiichi Sankyo는 인디아 최대의 제약기업인 Ranbaxy Laboratories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6월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Daiichi Sankyo는 최대 5000억엔(약 5조원)을 들여 TOB(주식공개매수) 등으로 50.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다.

Daiichi Sankyo는 세계 약 50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업을 벌이고 있는 Ranbaxy를 산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세계를 무대로 한 제네릭 의약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Daiichi Sankyo는 Ranbaxy의 창업가 일족으로부터 30%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Ranbaxy의 제3자 할당 증자를 인수하는 한편 TOB로 과반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Ranbaxy의 2007년 매출액은 1800억엔으로, Daiichi Sankyo는 Ranbaxy 인수로 연결매출액이 1조엔을 넘는 Takeda Yakuhin에 이은 일본 2위의 제약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의 특허 효력이 종료된 후 똑같은 성분으로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신약의 70%에 못미치는 저가를 무기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제네릭 보급률은 20% 미만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해 2012년까지 보급률을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Ranbaxy는 전염병과 당뇨병의 제네릭을 주력으로 세계 최대의 제네릭 제약기업 이스라엘의 테바와 미국과 유럽의 제약기업을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2>